

전자사전 활용을 위한 중국어 대역 정보 구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 陳慶智, 蔡連康*

<차례>

- 1.
2. 한국어 전자사전의 기술 구조
3.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대역 양상
4.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중국어 대역 정보 탑재 방안
5. 연구의 의의와 전망

1.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의 진정한 이해와 적절한 사용을 위해서 한국 문화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되고 있다. 문화 교육의 영역에는 경어법, 호칭, 비언어적 표현과 더불어 관용어와 속담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속담은 문화 교육의 중요한 자료로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어 화자들에게는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유사한 전통 문화 배경을 바탕으로 속담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폭넓게 인식되고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¹⁾ 또한 앞서 언급한 문화 교육 영역

중에서 관용어와 속담 부분은 전자사전으로 구축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한국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세종계획의 주요 분야에 전자사전 개발 분과가 있다. 이 연구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기술된 자료를 전산학적 관점의 연구와 체계적으로 집목시킴으로써 정보 검색, 텍스트의 분석과 산출, 자동번역, 다국어 사전 구축, 인쇄 사전 구축 또는 한국어 교육이나 순수연구 등에 두루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의는 전자사전으로 구축된 한국어 속담 정보를 중국어 화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 구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한국어 전자사전의 기술 구조에는 외국어 대역 부분이 있다. 여기서는 전자사전의 속담 대역 정보 기술 부분에 중국어 정보를 탑재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간다.

2. 한국어 전자사전의 기술 구조

우선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 중인 ‘속담 사전’의 기술 구조를 소개한다.

<idmDic>	
<superEntry>	
<orth></orth>	표기정보
<entry n="1">	표제어
<mnt_grp>	관리 정보 그룹
<dic>관용표현사전</dic>	사전 이름
<cre>	최초작성정보구획

1) 이번 논의에서는 속담 교육의 필요성 자체가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어 화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에도 祝翠瑛(2006)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

<cre_date></cre_date>
<cre_writer></cre_writer> 최초작성자
<cre_note /> 최초작성메모
</cre>
<mod> 수정정보구획
<mod_date></mod_date> 수정일
<mod_writer></mod_writer> 수정자
<mod_note></mod_note> 수정메모
</mod>
</mnt_grp>
<head_grp> 표제어 정보그룹
<org></org> 어원 정보
<idm_type type="temp"></idm_type>관용표현 유형 정보
<see></see> 참조
<head_note></head_note> 표제어정보 메모
</head_grp>
<morph_grp> 구성정보그룹
<idm_str></idm_str> 관용표현 내부구조
<idm_str_dis></idm_str_dis> 관용표현 내부구조 분포 정보
<var type="emph"></var> 강조형 정보
<var type="vulg"></var> 비속어형 정보
<var type="abb"></var> 준말형 정보
<var type="hon"></var> 존대어형 정보
<var type="JK_drop" JK="0" drop="temp"></var> 격조사 생략 정보
<var type="JK_var" JK="all" vari="temp"></var> 조사 변이 정보
<var type="etc"></var> 기타 변이 정보
</morph_grp>
<sense n="1"> 갈래
<sem_grp> 의미정보그룹
<trans></trans> (영어) 대역 표현
<domain></domain> 의미 영역(전문 분야)

```

```

<reg></reg> 레지스터
<con></con> 내포적 의미
<intention></intention> 의도적 의미
<lr type="syn"></lr> 동의적 표현
<lr type="ant"></lr> 반의적 표현
<lr type="rel"></lr> 기타 관련 표현
<lr type="proverb"></lr> 관련 속담 표현
</sem_grp>
<syn_grp> 통사정보그룹
<synt_a> 통사정보 A 구획
<frame n="1"> 통사적 구성의 갈래
<case_frame type="yes"></case_frame> 문형 정보
<syn_sem n="1"> 통사-의미관계
<sel_rst></sel_rst> 선택 제약
<tht_rol></tht_rol> 논항 구조
<eg></eg> 예문
<ss_note></ss_note>메모
</syn_sem>
</frame>
</synt_a>
<synt_b> 통사정보 B 구획
<s_mod type="temp"/> 문장의 유형
<add_v_end type="ida"/> ‘이다/하다’ 결합 가능성
<s_var></s_var> 통사적 변이형 정보
<c_md></c_md> 수식어 제약
<v_rst type="rest"></v_rst> 용언의 시제, 상, 서법의 제약
<v_end_rst type="temp"></v_end_rst> 용언의 어말 어미 제약
<syn_rel> 통사적 관계
<pas_str exist="temp"></pas_str> 피동사 대응
<pas_l_str exist="temp"></pas_l_str>장형피동사 대응
<act_str exist="temp"></act_str> 능동사 대응

```

```

<caus_str exist="temp"></caus_str> 대응
<caus_1_str exist="temp"></caus_1_str>장형사동사 대응
<uncaus_str exist="temp"></uncaus_str> 주동사 대응
<int_str exist="temp"></int_str> 자동사 대응
<tra_str exist="temp"></tra_str> 타동사 대응
<gr_info type="res" exist="temp"></gr_info> 재구조화
<gr_info type="rel" exist="temp"></gr_info> 관계화
<gr_info type="clf" exist="temp"></gr_info> 분열문
<gr_info type="imp" exist="temp"></gr_info> 명령문
</syn_rel>
</synt_b>
</syn_grp>
</sense>
</entry>
</superEntry>
</idmDic>

```

나열한 구조를 보면 전자사전의 내용에 표제 항목과 관련된 다양한 언어학적 정보가 포함된다. 여기서의 지면 사정상 자세한 풀이는 하지 않는다. 위에서 의미 갈래 정보 하위 정보에 대역 정보 부분은, 현재는 영어 대역 정보를 중심으로 간단한 번역문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중국어 번역 부분을 효율적으로 탑재한다면 중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한국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이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밝혀 보고자 한다.

3. 속담의 중국어 대역 양상

한국어 속담에 대한 중국어 대역 정보의 특징은 중국어 표현의 다양성

에 있다. 한국어 속담과 중국어 대역 표현들은 수천년에 걸친 문화적 유대 관계의 결과로서 깊은 관련성을 보인다. 이러한 중국어 대역 표현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런 점은 중국어 화자들에게 한국어 속담을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방해가 되기도 한다. 특히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한국어 속담 중에서는, 원래 중국어에서의 쓰임과는 달리 변용이나 와전된 것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경지(2002)에서 비교적 자세히 이루어졌다.

다음은 한국어 속담을 중국어로 대역할 때,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관련성의 양상을 간단히 예를 들어 보인 것이다.

1) 쓰임과 뜻에서 와전된 예

‘구렁이 제 몸 추듯’이라는 속담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이 속담은 중국과 관련된 ‘屈原이 제 몸 추듯’이라는 속담에서 와전되었다고 생각한다. 굴원은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이고 만년에 정치 생활이 불운하여 조정에서 쫓겨났다. 그 후에는 술을 벗하여 방랑 생활을 하면서 〈漁父詞〉 같은 작품을 빌어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을 비웃고 자화자찬을 했다. ‘굴원이 제 몸 추듯’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유래된 속담이다. 그러나 발음의 혼동(굴원이[gurwoni], 구렁이[gureongi]와 문화적 공감성(굴원보다 구렁이가 주변에서 더욱 흔히 보인다) 등의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전수 과정에서 속담을 와전시켰다. 이러한 속담의 기원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알릴 수 있다면 문화적 이해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중국에서의 표현과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예

‘鷄卵有骨(계란에도 뼈가 있다)’은 늘 일이 잘 안 되던 사람이 모처럼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그 일마저 안 되고 말았다는 속담이다. 이 속담의 기원은 黃禧(1363~1452) 정승과 연관이 있다. 황희 정승은 너무 청렴해서

재상 자리에 있어도 먹을 것이 자주 부족하니 왕은 어느 날 ‘남문에 서 들어오는 물건을 모두 주라고 명령했다. 그런데 마침 큰 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고 저녁에야 계란 한 꾸러미가 들어왔다. 삶아서 먹으려 했더니 모두 꺾어 있었다고 기록에 실렸다. 사실 ‘계란유골’의 ‘유골’은 ‘뼈가 있다’가 아니고 이두식 표기로 봐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 즉 ‘骨’은 동사인 ‘끓다’로 봐야 하고 ‘有骨’은 즉 ‘끓어 있다’, ‘끓었다’로 해석해야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字面的 의미로 ‘계란에도 뼈가 있다’로 해석한 것이다.

이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한국어 학습자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계란에도 뼈가 있다’라는 속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쉽게 중국의 속담인 ‘달걀 속에서 뼈를 찾다(雞蛋裏挑骨頭)’와 연관해서 이해하는데, 이 속담은 ‘억지로 남의 흉을 들추어 내다’라는 뜻으로 한국 속담의 내포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중국어로의 대역 과정에서 속담의 변용, 그리고 와전을 밝힐 수 있다면 한국어 학습에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자사전의 중국어 대역 정보를 기술할 때에, 이러한 중국어 대역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술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한국어 학습자는 물론이고, 한국어의 중국어 대역 정보 자료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 정보는 기계 번역이나 정보 검색 등에도 고급 언어학적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속담을 중국어 표현으로 바꿀 경우 중국어의 표현 형식과 내용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어에서 관용표현의 어느 부분까지를 속담으로 정의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이번 발표와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한국어에서의 속담에 대한 정의는 전적으로 세종계획 전자사전의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대역 대상이 되는 한국어 속담은 중국어 대역 표현에 있어서 중국어에서 속담,²⁾ 성어(成語), 유사의미

표현³⁾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정보도 모두 전자사전에 탑재할 필요가 있다.

4. 교육을 위한 중국어 대역 정보 탑재 방안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한국어 속담의 중국어 대역 표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한국어 전자사전 구축의 자료 기술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중국어의 대역 양상을 정리하여 기술할 항목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중국어 대역 표현의 모든 양상을 반영한 기준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양상의 범주별 구조 설정도 필요하다.

우선 현재의 전자사전 기술 구조를 보면 의미 항목 하위에 대역정보 구역이 하나만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구축 지침에선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을 1~3개 정도 제시한다. 대역 표현이 반드시 영어에서도 관용표현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역 표현이 여럿 있을 때에는 태그를 반복하여 제시한다.

() 표제어가 ‘머리가 돌다’일 경우:

<trans>be out of one's mind</trans>

<trans>be off one's head</trans>

<trans>be wrong in the head</trans>

2) ‘俗語’, ‘俗言’, ‘俗論’ 등으로 나타낸다(진경지, 2002).

3) 동일한 의미의 대역어가 아니고 유사한 의미를 보이는 다양한 표현 양식을 말한다.

<trans></trans> 부분에 해당 한국어 속담의 전체 의미 대역 정보만 포함된다. 예를 들면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의 경우 <trans>Medicine good for your health is bitter to the mouth</trans>로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전자사전 기술 구조를 보면 언어는 외국어로 한정하고 있고, 해당 표제항목의 다양한 영어 의미 대역 표현을 단순히 반복하여 제시하고만 있다. 외국어를 영어만으로 한정한다 할지라도,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의미의 번역과 더불어 영어의 유사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표현도 mark-up 표현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차 한국어 전자사전이 영어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외국어와의 연계 사용을 위해서는, 현재의 전자사전 대역부분의 정보 기술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어의 대역 정보 기술에 있어서는 해당 한국어 속담 표현의 중국어 관련성을 밝혀 기술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간단한 예시를 통해 중국어 대역 방안을 제안해 본다.

우선 영어 대역 표현의 지침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속담의 의미를 표현하는 중국어 설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당 한국어 속담과 유사한 중국어 관용표현이 있는 경우 해당 관용표현의 유형별 기술이 필요하다. 여기서 특별히 중국어에서 기원한 한국어 속담에 대한 기술의 경우 그 중국어 표현과 의미가 같은 경우와 변형 혹은 와전된 정보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련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한국어 학습자나 중국어 학습자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이 정보는 검색이나 기계 번역에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이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고려하여 전자사전에 탑재할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sem_grp>

<trans> 대역 표현 부분

<eng></eng> 영어 대역 표현

<chi> 중국어 대역 표현

<main mean></main mean> 의미 설명 부분

<origin type = "sok"></origin> 중국어 속담 관련

<origin type = "phrase"></origin> 중국어 성어 관련

<origin type = "analogy"></origin> 중국어 유사 표현

<origin type = "change"></origin> 중국어 변형 표현

<origin type = "ref"></origin> 중국어 와전 표현 등 기

타 참조

</chi>

</trans>

5. 의의와 전망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어 전자사전의 속담 표제항 기술에 중국어 대역 정보를 탑재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국어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전자사전 개발 분과의 ‘전자사전’에는 다양하고 유익한 언어학적 정보가 효율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기계 처리에 적합한 전자 자료로서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이 정보는 한국어 연구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그 효용성은 무척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효용성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기계번역 분야에서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 대역 부분의 기술에도 정보 처리의 효용성을 고려한 유용한 정보의 탑재가 필수적이다.

한국어는 수 천년에 걸쳐 한자를 중심으로 중국어의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런 이유로 한국어 문화 교육 분야의 주요 부분인 속담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고려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 속담의 단순한 대역 의미 정보만을 전자사전에 추가하는 것뿐 아니라 한-중 언어의 특수성도 고려한 정보가 전자사전에 탑재된다면 그 효용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본다. 따라서 이 점을 반영한 한국어 속담 전자사전 중국어 대역어 기술 방법 연구를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엄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 실제 자료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1996). “한국어 속달도 배양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교육한글」(한글학회), pp.317~325.
- 김현정(2002). “속담을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2002).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문화론」, 서울: 한국문화사.
- 우인혜(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항목 선정.” 「이중언어학」 25, 이중언어학회, pp.149~186.
- 陳慶智(2002). “한-중 속담 비교 연구-변용과 와전을 중심으로-.” 한양대 국어국문학과논문.
- 祝翠瑛(2006). “한국어 관용적 비유표현 교육 연구-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최권진(2007). “속담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7차 국제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367~385.
- 홍재성 외(2006).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개발분과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